

# 이스라엘-하마스 유혈사태 종료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26일(이하 현지시간) 가자 지구 사태의 무기한 휴전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난달 8일 시작돼 50일간 양측에서 22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은 교전 사태가 50일 만에 일단락됐다.

휴전을 중재한 이집트는 이날 외무부 성명에서 "26일 오후 7시(GMT 16시)를 기해 휴전이 공식 발효됐다"면서 "무력 사용 중단과 동시에 가자지구 국경을 개방해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한 구호물품, 건설자재의 반입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연안에서 제한했던 어로작업을 6해리 바다까지 허용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외무부는 "한 달 안에 다른 사안에 대한 양측 사이의 간접 협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이스라엘의 한 관리는 이와 관련, 하마스의 가자지구 봉쇄 해제 요구와 이스라엘의 하마스 무장 해제 요구와 같은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협상이 이집트의 중재로 카이로에서 한 달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고위 인사인 자야드 나칼라 역시 하마스 측의 가자지구 공항과 항구 건설 요구와 같은 더욱 복잡한 사안은 한 달 안에 시작될 협상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휴전 합의에 따라 하마스 측은 2012년 11월 '8일 교전' 끝에 이뤄진 휴전 합의와 같은 수준의 조건을 확보하게 됐다.

당시 합의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하마스 측에 가자지구 봉쇄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포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

다. 그러나 가자지구 봉쇄 조치는 그 후에도 거의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AP 통신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에 양측이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는 핵심 쟁점은 한 달 안에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데 그쳐 휴전 합의 파기의 불씨를 완전히 끄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스라엘 관리는 한 달 안에 이집트의 중재로 시작된 협상에서 가자지구 봉쇄 해제와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2007년부터 무기와 군사장비가 하마스에 전달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봉쇄 조치를 전면 해제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요구대로 무장 해제를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내달 중 시작될 협상에서 양측이 오랜 기간 팽팽하게 대립한 쟁점을 타결하지 못하고 협상을 마친다면 무기한 휴전의 기한도 종료될 수 있다.

이날 오후 7시를 기해 휴전이 공식 발효하자 가자 시티에서는 수천 명의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50일간의 유혈 사태 종식을 환영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한편 지난달 8일 시작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으로 이날까지 팔레스타인인 2140명이 숨지고 1만1000명 넘게 다쳤다. 이 가운데 70%정도가 민간인으로 유엔은 1만7000 채의 가족이 파괴되고 집을 떠난 피란민만 10만 명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같은 기간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과 교전 등으로 민간인 5명과 군인 64명 등 모두 69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이집트 중재 무기한 휴전 합의...50일간 2200여명 희생  
가자지구 국경 개방 물품 반입 허용...한달내 추가협상



### 이스라엘-하마스 가자사태 50일일지

2014. 8. 30 이스라엘 실종 10대 청소년 3명, 20여명 만에 승전 거 발표. 이스라엘 보복 공습

- 1 팔레스타인 10대 소년 1명 피랍 살해
- 2 팔레스타인 10대 소년 1명 피랍, 아-팔 긴장 고조
- 3 이스라엘 경무, 팔레스타인인 살해 혐의로 유대인 6명 체포
- 4 이스라엘, 가자지구 남단 공습, 팔레스타인인 9명 사망
- 5 이스라엘, 가자지구 150여곳 등 잇달아 대규모 공습 및 예비군 동원,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38명 발생, 부상자 300여명 이상
- 6 가자지구 공습 4일째, 팔레스타인인 100명 이상 사망, 670명 부상
- 7 가자지구 공습 5일째, 총 157명 사망, 1,060명 이상 부상, 이스라엘 지상군 최초로 가자지구 진입해 팔레스타인 여대군과 교전
- 8 13-14 일주일간 교전으로 팔레스타인인 186명 사망(2012년 '8일 교전' 이후 최대 규모) 이집트 정부의 휴전 중재안 제의와 아-팔 논의 시작
- 9 15 하마스, 이집트의 휴전 중재안 거부로 휴전 무산, 이스라엘 공습 지속, 하마스 로켓포 공격에 이스라엘 첫 사망자 발생
- 10 이스라엘, 가자지구에 지상군 투입, 이스라엘-가자 영공 항공 피격 사건
- 11 팔레스타인 '피의 일요일' 여파, 예민한 팔레스타인인 100여 명 사망, 가자지구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인명피해로는 5년 만에 최대 규모
- 12 가자지구 공습 2주째, 이스라엘, 가자지구 병력 피격 등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526명, 부상자 3천200명, 난민 10만명 발생(UNRWA 발표)
- 13 가자지구 유엔 학교시설 피격, 사상자 110여명 추가 발생
- 14 이스라엘-하마스 12시간 인도적 지원의 정전 무 교전 재개
- 15 16-17 이스라엘, 가자지구 제1차 유엔학교 등 포격 및 가자지구 영공 피격,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1천352명, 부상자 7천320명 발생
- 18 이스라엘, 예비군 1만6천명 추가 동원해 항공 피격 등 군사작전 확대
- 19 이스라엘군 병력 일부 철수에도 유엔학교 피격 등 가자지구 공습은 지속
- 20 이스라엘-하마스 72시간 휴전, 이스라엘 지상군 전면 철수, 가자지구 공습 29일째,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1천968명 이상, 부상자 9천550명 이상 발생
- 21 이스라엘-하마스 13일 자정 종료되는 임시 휴전 5일 연장 합의
- 22 20-21 임시적 휴전 종료, 이스라엘 폭격에 하마스 군 지휘관 사망 등 교전 재개, 장기 휴전 협상도 결렬
- 23 하마스, 이스라엘 협박자 18명 처형
- 24 25 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으로 넘어 고층 아파트 붕괴
- 26 이스라엘-하마스 교전 사태 50일 만에 영공 휴전 합의,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2천140명, 부상자 1만1천명, 이스라엘 사망자 68명 발생

자료: 연합뉴스

## 美 국무부 대북라인 원톱체제로

### ‘특별대표’ 5년만에 폐지

미국 국무부가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리를 없애기로 하면서 북핵·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실무 사령탑도 5년여 만에 '투톱(two top) 체제'에서 '원톱(one top) 체제'로 환원되게 됐다.

미국 국무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출범한 2009년 대북정책 특별대표직을 신설했다. 설치 당시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임무는 북핵 문제를 포함해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장관에게 조언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2008년 말 중단된 6자회담 재개 및 북핵 문제 등과 관련된 협상 업무를 주로 맡았다. 초기에 혼란이 있기는 했지만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6자회담 수석대표를, 특별대표 밑의 6자회담 특사가 6자회담 차석대표의 직함을 가졌다.

북미 대화의 미국측 수석대표 역할을 한 것도 글린 데이비스 현 대북정책 특별대표였다.

대북정책 특별대표직 신설에 따라 과거 조지 부시 정부에서 북핵 협상 업무도 담당하던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 정책 일반만 담당하게 됐다.

북한·북핵 문제에 대한 실무 사령탑이 자연스럽게 두 개로 나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까지 '한국과(북한 문제도 담당)-6자회담 특사-대북정책 특별대표-(국무부 부장관)-국무장관'으로 북핵 문제 보고라인이 구성됐다. 그러나 앞으로 대북정책 특별대표 자리가 없어지고 국무부 부차관보로 이동하는 성 김 주한 미국대사가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기능만 담당하게 되면 북핵문제 보고 라인에 '한국과-6자회담 특사-(국무부 부차관보)-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국무부 부장관-국무장관'으로 변하게 된다.

북한 문제 담당 동아태 차관보가 북핵 문제도 다시 맡게 되는 셈이다. 다만 부시 정부 당시의 크리스토퍼 힐처럼 동아태 차관보가 6자회담 수석 대표도 맡을지는 아직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동해 강진시 훗카이도에 23m 쓰나미”

### 日 전문가 회의

동해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 훗카이도(北海道) 지방에 최대 높이 23.4m에 달하는 쓰나미(지진해일)가 밀려올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27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내각부·문부과학성 등이 구성된 대규모 지진 관련 전문가 모임은 동해의 주요 단층 60곳에서 규모 6.8~7.9의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분석했다.

쓰나미의 높이는 훗카이도 남부의 세타나초(せたな町)가 23.4m, 아오모리(青森)현 후카구라마치(深浦町) 17.4m, 이시카와(石川)현 스즈(珠洲)시 15.8m, 야마가타(山形)현 쓰루오카(鶴岡)시 13.6m 등으로 예상됐다. /연합뉴스

분석 대상이 된 173개 시촌촌(市町村·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82곳은 지진 발생 후 10분 이내에 쓰나미가 30cm 높이로 도달하며 이 가운데 15곳은 1분 만에 쓰나미가 같은 높이로 밀려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분석은 일본이 자국의 재해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수행한 것이지만 한국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해안의 일본 연안에서 지진이 발생 하더라도 한국까지 쓰나미가 밀려올 가능성이 있고 그런 사례도 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1993년 7월 12일 훗카이도 오후시리섬 북서해역에서 규모 7.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한국 동해안에 1시간 30~3시간에 걸쳐 10분 간격으로 쓰나미가 밀려와 피해를 줬다. /연합뉴스

## 히로시마 산사태 수습 장기화

일본 히로시마(広島)시에서 산사태가 발생하고 1주일 사이에 사망자 70명이 확인되는 등 피해가 크다.

27일 일본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찰은 이날 오전 9시까지 히로시마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70명, 실종자가 18명이라고 집계했다. 전날까지 확인된 부상자는 40명을 넘었다.

이달 19일 심야부터 20일 오전에 걸친 집중호우로 발생한 산사태 때문에 약 15만 명에게 피난권고·지시가 내려졌다.

침수·파손된 가옥은 360여 채로 집계됐으나 2차 사고의 우려가 있고 마을이 토사에 파묻혀 영망이 됐기 때문에 주민 1300명이 1주일째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당국은 소방관, 경찰, 자위대 등 3000여 명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일본 각지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는 주민과 함께 복구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산사태 수습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에어컨 없이 살 수 있는 집

신속하고 간단한 뽀칠시공으로 **뿌려만주면**  
**3~4°C** 실제 내부 온도가 차이가 난다면?

✓ **이지골드코트**는 복사열로 인한 건축물의 내부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뽀칠 시공함으로써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의 **복사열을 방지**합니다.  
이제 후끈후끈한 열대야에서 해방되십시오.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시공전 시공후

주택 외벽 계랑기와 지붕 사료탱크 돈사 지붕

적용범위: 신축 건물 및 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외벽, 옥상, 지붕 등  
슬라브 구조 주택 옥상 / 슬레이트 지붕 / 아스팔트 영골 / 주택의 외벽 / 샌드위치 패널 벽체 및 지붕 기와지붕 / 계랑기와 지붕 / 아치판넬 구조 지붕 /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 지붕 / 사료탱크 등

EG GOLD COAT 이지골드코트

대리점문의 본사: 충남 홍성군 갈산면 내포로 1607-19 T. 010-7514-3266 / T. 041-634-9909

(주)홍성이엔지  
www.hsegreen.com

호남영업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1 T. 010-2028-5900 / T. 062-513-1400  
대리점: 광주남구 T. 010-5679-8100 / 광주서구 T. 010-5609-3500 / 광주광산구 T. 010-3641-9680  
광주북구 T. 010-9431-3445 / 전남순천 T. 010-3633-3663 / 전남여천 T. 010-2788-0392

##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적공인가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티아는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대산프리모) 판매

대산프리모가발